

제2강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비교 II

(1교시)

◆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비교 ①

※ 학습목표

인도에서 중국에 이르는 동양사상을 두루 살펴보고 서양사상과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 중체서용(中體西用) : 중국사상을 몸통으로, 서양사상을 기술로

▲ 동도서기(東道西器) 동양의 도道와 서양의 기술을 사용하자

형이상자 위지도 : 모양 없는 것을 도道라하고

형이하자 위지기 : 모양 있는 것을 기器라한다.

; 즉 동양적인 사상 위에서 서양적인 기술을 이용하자 ← 쉽지 않다.

서양의 기술이라는 것은 정신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인가?

← 서양의 기器 역시 도道와 연관된 것이다.

▲ 동양의 옛 정신들을 현대사회에 똑같이 되살릴 수 없다.

동양에는 유학의 禮와 德을 중시, 경노사상, 효 등과 같은 사상이 있다. 이러한 사상은 가치 발현을 하던 풍토가 있었다. 이러한 가치관을 현대사회에 되살려보자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 예와 덕이 쓰이는 사회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아는 사회이다. (이익을 위한) 이익 사회와 (혈연 등으로 이어진) 공동사회로 사회를 나누어 보았을 때, 유학은 공동체 사회에 있을 때 발현되기 쉽다. 이러한 공동체 사회는 남의 비난에 민감한 사회, 사람눈치를 봐야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자연스럽게 예절을 지켜야하고 덕을 쌓아야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이익사회로써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즉, 사회가 유학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ex) 1. 사회가 급박하게 변해가는 오늘날에는 노인의 경험이 쓰일 때가 없다.

경로우대증만으로 존중받을 수 없듯이 단순한 경노사상의 부활을 외칠 수 없다.

반면, 지방자치제와 유학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 향토애가 생기고 이동이 줄어든다. 이것은 유학의 이념과 맞아 들어간다. 유림들은 동성동본의 결혼 반대라든가 호주제 폐지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지방자치제에 따른 공동체 사회를 부활하고 반상회를 도와 그 역할을 해야한다. 억지로 끼워맞추듯 부활

을 외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늘날의 실정에 맞게 그것을 재편성 혹은 선택적으로 사용해야한다.

-> 어떤 사상이 나온다는 것은 그 뿌리가 있다. 그 토양. 땅이 있다.

사상이라는 것도 내리는 토양이 없다면 뿌리내릴 수 없다.

ex) 2. 한 입시제도에 효행에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발표에 한 아나운서의 감동적인 반응

그 반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입시지옥을 그냥 두고 효행을 반영한다는 것은 점수를 위해 억지로 효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덕(德)이나 효(孝)와 같은 공동체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덕목을 계량화하여 오늘날의 가치로 매길 수 없다.

(2교시)

◆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비교 ②

※ 학습목표

동양사상을 오늘날 어떠한 입장에서 받아들여야하는지 생각해본다.

▲ 동양 사상과 오늘날의 상황

-> 유학의 근본이념을 예로 들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아보자

; 논어에 따르면 부모가 잘못해도 따라야한다. 시비를 걸 수 없다.

오늘날에는 무조건 이러한 정신을 살리기가 쉽지않다.

왜 이러한 사상이 나왔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조화있게 균형있게 따져봐야 한다.

ex) 유학은 修己治人之學(자기를 닦고 담을 다스린다)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 修己의 궁극적 목적은 이상적인 인격

治人の 목적은 이상적인 세계

유학은 일반인이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선비가 배우는 학문이다. 이는 벼슬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겐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 장자 천하편

중국, 동양의 학술 전반적으로 집어 이야기하여 內聖外王之道 라고 말했다. 이것은 내적으로 성인이 되기를 목표로 하고 외적으로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말이다.

ex) 맹자에 따르면 “선비가 벼슬을 추구하는 것은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같다.”

-> 유학을 배우는 이들은 학문을 통해 내적으로 자기 인격을 완성하고 벼슬자리에 올라 백성에게 감화를 끼치고 좋은 세계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서 유학은 반드시 벼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격의 완성과 이상적인 세계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위의 예를 살펴보면 동양사상은 실천적이다.

동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실천적이다. 오늘날에는 治人 과 外王의 개념이 빠져있다. 이상적인 사회와 이상적인 개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어떤 사회를 전제로 하는냐에 따라 이상적인 인격이 달라진다. 이것들은 서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등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1등 하려는 사람은 필요 없다. 오히려 사회 악이다. 사회에 따라 이상적인 인간상이 달라진다.

▲ 오늘날의 사회와 동양사상의 관계

어중떠게 동양적 가치관을 자기 가치관으로 삼으면 망하기 십상이다. 웨스탈 광고에서 배 부르게 먹고 소화제를 먹는가? 조금 덜먹으면 되지 않는가? 내 배가 부르다는 것은 다른 생명의 것을 훔쳐오는 것이다. 지구에는 인간만이 살고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생명은 생존 경쟁에 의해 멸종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입는 옷 또한 그렇다.

-> 자본주의에서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가치가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욕망이 작으면 죽는다. 물건이 없어서 혹은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물건을 사기 위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 욕망이 사라지면 자본주의는 망한다. 하지만 동양의 사상은 욕망을 중시하지 않는다. 동양의 가치관은 욕망을 부추기지 않는다.

莫善於寡欲 ->양심을 기르는데 마음을 기르는데 욕망을 버리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낙오자의 삶이다.

하지만 대응 되는 것이 있다. 유학에서는 사명감을 가르친다. 불교에서는 서원을 가르친다. 즉, 동양사상에는 욕망에 멩들어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보정하는 다른 요소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러한 전면적인 시각으로 현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따져 보아야한다.